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 1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 2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 3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네
- 4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 5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 1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때에 날 부르소서
  - 2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 3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 4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있을까
- 후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 담당

11/21(화)	11/22(수)	11/23(목)	11/24(금)	11/25(토)	11/27(월)
박재용 안수집사	박성해 안수집사	김창섭 안수집사	허윤무 안수집사	이 선 안수집사	김기환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성숙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262장	.....	다	함	께
기 도	.....	김창섭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 이사야 66:1~4	.....	인	도	자
찬 양	..... 나의 눈을 들리라	.....	새벽찬양대		
설 교	..... 『하나님이 돌보는 자』	.....	이성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279장	.....	다	함	께
축 도	.....	.....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이사야 66:1~4>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3년 11월 23일(목)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허물 많은 저희 모습,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저희의 가난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주셔서 주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채우시고 불드시며 강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바른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문안 공동체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제직들의 헌신과 수고로 새문안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각 부서에서 성실하게 소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안식년 중에 계시는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선한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중독과 동성애, 이단 등 죄악으로 어두운 이 땅에 바른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고 국민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정직과 겸손함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과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땅에 주의 평화와 참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